

# “신중치 않은 선택” 반발 여론 확산... 민주당 원팀경선 ‘흔들’

## 이낙연 대선 후보 국회의원직 사퇴

당 지도부 만류에도 사퇴서 제출 내년 종로구 보궐선거 책임론 부상이 후보 “정권 재창출 절박한 마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에 여러 경쟁자들이 반발했다. 신중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당 지도부도 만류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기 위해 당내 갈등부터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의원직 사퇴를 두고 “그만큼 절박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서 있는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라도 ‘모든 것을 던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해 배수의 진을 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민께 참으로 죄인된 심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 재창출로 성공적인 다음 정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직원이 이낙연 의원실에서 내놓은 책자와 서류더미 등을 수거하고 있다. /뉴스시스

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경쟁자를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분’,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만큼 여러 분야에 균형 잡힌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여러 의혹이 있거나, 정책 실행에 있어 논란까지 갖춘 후보가 대선 안 된다

는 누앙스의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다른 후보들이 의원직, 도지사직을 갖고 있는데 그들도 동참해야 하나’는 질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예전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내가 사퇴하라’고 말했던 분들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건 이상하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배수진’을 두고 당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 전 대표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내년 대선과 함께 치를

‘보궐선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감당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 캠프는 전날 (8일)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배인 정치 1번지 종로가 민주당원과 지지자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는지를 망각한 경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만들어주신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는 대선 경선판에 함부로 올릴 수 있는 판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자신의 정치적 윤희에 따라 버리는 것은 스스로 정치인의 길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로라는 지역구가 민주당에서 승기를 잡기 쉽지 않은 곳인데,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이곳을) 내친 게 아니냐”라며 “의원직 사퇴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대선과 함께 종로 보궐선거도 치르게 된다. 이때 ‘민주당 책임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문제”라고 비판했다.

물론 과거에도 대선 기간 ‘지지층 결집’, ‘배수진’ 등 이유로 의원직 사퇴를 내건 사례는 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오’

를 보이며 대선 후보 등록과 함께 의원직 사퇴를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18대 대선 국면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비례대표직 사퇴’와 함께 배수진을 쳤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수진 전략으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 전 대표 역시 ‘배수진’ 전략이 성공하려면, 당위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당내 반발 여론도 무마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정권 재창출을 향한 충정, 대선후보로서의 결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향후 원팀으로 경선을 치러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만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의 만류와 내부 반발에도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일 중국회의원 회관도 비운다. 이 전 대표 의원실 보좌진도 전원 면직 처리될 것으로 전해진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 1000兆 돌파 국가통제 장막 걷고 민간 역할 살릴 것”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권교체의 당위성 설파 “빛더미 올려진 ‘빛상누각’”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강조하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다”며 “미래를 개척해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시준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적 시대가 영구고착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영업자의 고통을 공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연일 간판이 내려가고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간다”며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하나”고 반문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3無·3彈·3不’로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불(不)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증대 ▲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 정상화 ▲부동산 거래비용 인하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인하 추진 ▲임대차 3법 재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서 “협약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 추천 인물을 보니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정작 문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 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다”며 “친정권 사람들 발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한 사학의 팔을 비트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정부 예산 604조4000억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빛더미에 쌓아 올린

‘빛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거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민주노총 개혁 ▲대중 굴종 외교 탈피 ▲대북 색안경 벗어나기 등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이 코앞인데,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현역 의원”이라며 전 해철 행정안전부·박범계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 유연성 확장 ▲최저임금제 업종·산업·지역별 차별적용 ▲독일 진보정권이 내놓은 하르트스 개혁 모델 통한 노동 개혁 등도 제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1위, 윤석열 2위

(27%) (24.2%)

2주전 비해 이 지사 ↑윤 전 총장 ↓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7.0%로 24.2%를 기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을 오차범위(±2.2%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오차범위 안으로 앞섰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19명(응답률 5.5%,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주 전 (8월 4주차) 같은 조사보다 2.1%포인트 올랐고 윤 전 총장은 2.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사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광주·전라(6.5%포인트 ↑)와 서울(4.5%포인트 ↑), 대전·세종·충청(3.7%포인트 ↑), 인천·경기(2.8%포인트 ↑), 부산·울산·경남(2.7%포인트 ↑), 50대(8.0%포인트 ↑)와 60대(4.1%포인트 ↑), 무당층(6.2%포인트 ↑)과 진보층(4.4%포인트 ↑)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정기 여론조사에서 약 6개월 만에 선두자리를 내준 윤 전 총장은 직전 조사에 비해 호남(7.2%포인트 ↓)과 충청권(4.7%포인트 ↓), 인천·경기(4.4%포인트 ↓), 50대(6.7%포인트 ↓)와 60대(5.1%포인트 ↓), 20대(2.3%포인트 ↓), 진보층(5.3%포인트 ↓)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홍 의원은 15.6%를 기록해 지난 조사보다 7.5%포인트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직전 조사보다 대구·경북(11.9%포인트 ↑)와 인천·경기(9.0%포

인트 ↑), 대전·세종·충청(8.3%포인트 ↑), 부산·울산·경남(8.0%포인트 ↑), 20대(14.1%포인트 ↑)와 40대(7.9%포인트 ↑), 50대(7.5%포인트 ↑), 보수층(13.7%포인트 ↑)과 중도층(8.6%포인트 ↑)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 밖에 이낙연 전 대표는 13.7%(0.9%포인트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민주당·0.4%포인트 ↓),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1.8%포인트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1%(1.0%포인트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8%(1.1%포인트 ↓),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1.5%(동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1.1%(민주당·0.6%포인트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1.0%(0.1%포인트 ↓),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국민의힘) 0.9%(0.3%포인트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0.7%(0.1%포인트 ↑) 순으로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만 놓고 한 적합도 조사는 이 지사 34.9%(민주당 지지자 53.9% 지지), 이 전 대표 26.0%(34.7%), 박용진 의원 6.2%(0.8%), 추미애 전 장관 5.8%(5.0%), 정세균 전 총리 4.5%(2.7%), 김두관 의원이 1.9%(0.9%)로 나타났다.

범야권 대선 후보만 놓고 한 조사에선 홍 의원이 32.6%(국민의힘 지지자 31.3% 지지), 윤 전 총장 25.8%(48.8%), 유 전 의원 9.9%(3.4%), 안 대표 4.4%(2.5%), 최재형 전 원장 3.7%(5.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2.2%(0.7%), 황교안 전 대표 2.2%(2.0%), 원희룡 전 지사 2.1%(1.4%) 순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태홍 기자